

고려인 강제 이주 90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 건축·전시 전문가 10인이 참여하는 자문위 첫 회의 개최, 2027년 말 완공 목표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고려인 역사박물관’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세워진다. 강제 이주 9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월 27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자문위원회에는 건축·전시·역사 분야 전문가 10명*과 재외동포정책국장,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및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박물관 설계부터 유물 조사·수집, 전시 내용 구성까지 전 과정에 함께한다. 자문위원회는 박물관 개관 시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 고가영 서울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김대익 공간공감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 김상열 인천도시역사관 관장, 김상헌 상명대 교수, 박제원 건축사사무소 담박 대표, 선진 타슈켄트 부천대 교수, 이용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과장, 장영호 흥익대 교수, 최정우 울산대 교수
- 이날 회의에서는 박물관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박물관의 기본설계와 유물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고, 자문위원들은 안전 토의에서 설계, 유물 조사, 전시 등 박물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김경협 청장은 회의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려인은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라는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문화를 지켜왔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한 소중한 동포”라며, “박물관이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를 배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재외동포청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박물관 설계안과 유물 조사·수집, 전시 설계·전시실 설치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이 되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붙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사진.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책임자	과 장 이규현 (032-585-3172)
		담당자	주무관 권오성 (032-585-3288)

